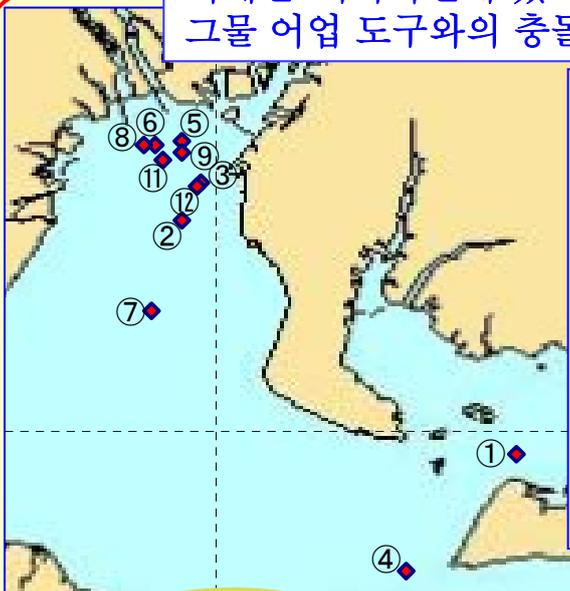


# 조업 어선에 주의!!

이세만·미카와만에서는 거의 1년을 통해 화물선 등의 주요 통항로에 겹쳐지듯이 배로 끄는 그물 어업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척의 어선이 한쌍이 되어 그물을 끄는 어업은 최대 500m에 이르는 그물을 끌어 화물선 등이 이 그물을 걸어 어선이 전복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세만·미카와만에 있어서의 화물선, 유조선 등과 배로 끄는 그물 어업 도구와의 충돌 해난 발생 위치(1998~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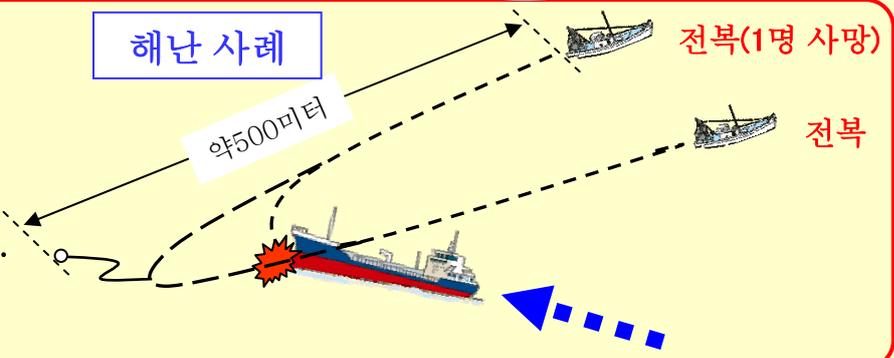


① 2002.04.25 AM0630 화물선	} 두척이 끄는 그물 어업 (어선 전복)
② 2002.08.04 AM0608 유조선	
③ 2002.08.08 AM0725 화물선	
④ 2004.06.30 PM1637 여객선	} 한척이 끄는 그물 어업 (어구 파괴)
⑤ 2004.10.15 AM0710 화물선	
⑥ 2006.10.13 AM0625 화물선	} 두척이 끄는 그물 어업 (어구 파괴)
⑦ 2006.11.16 AM1005 유조선	
⑧ 2007.03.02 AM0635 화물선	
⑨ 2007.09.10 AM0710 화물선	} 두척이 끄는 그물 어업 (어선 전복)
⑩ 2009.07.07 AM0542 유조선	
⑪ 2009.09.09 AM0555 화물선	
⑫ 2009.10.02 AM0615 화물선	} 두척이 끄는 그물 어업 (어구 파괴)

◇ 발생 장소  
이세만 북부해역에서 다발!  
◇ 발생 시기 (3~11월)  
여름, 가을에 다발!  
아침녘에 다발!

⑩ 《충돌 해난사고의 주요 원인》  
○쌍끌이망 어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어선군 속으로 돌입  
○쌍끌이망 어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피항거리가 짧다  
○쌍끌이망 어업의 확인 부족, 형상물, 본덴 등의 발견이 늦다

이른 아침 나고야항 앞바다를 화물선이 행행중 조업중인 어선단을 인식하였으므로 감속·변침하고 충분히 피해 항행한 의도였으나 배로 끄는 그물을 걸어 그물 어선 2척을 전복시켰다.



# 배로 끄는 그물 어선·어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선군은 한군데에 모여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피항.

◎어선군의 조업 범위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쌍안경에 의한 엄중한 망보기.

- 어선 속도, 진행 방향 확인
- 어선 선미로부터 예망색이 나와 있는지, 선미 방향에 본텐은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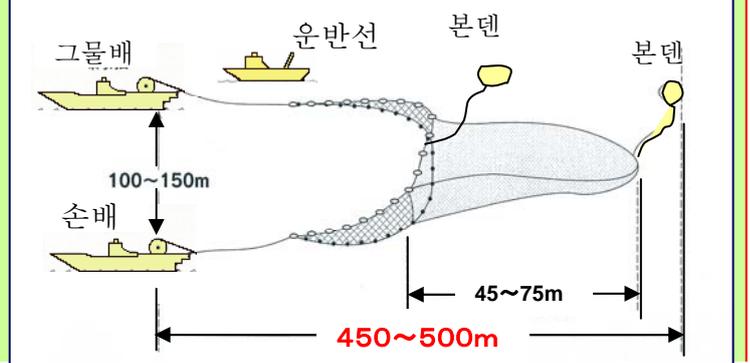
이세만 시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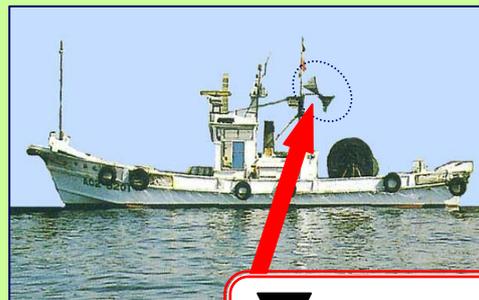
레이더 화면에서의 어선군(2008.9.30 0600경의 상황)



배로 끄는 그물 어업 조업 이미지도



\* 끄는 그물은 해상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업 중에는 장구 모양의 형상물을 달고 있습니다.